

## 일본 아시아주의자의 1905년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 인식\*

– 잡지 『혁명평론』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 정 희\*\*

### [국문초록]

본고는 1905년 러시아혁명 기간 중 일본 도쿄(東京)에서 발행된 잡지 『혁명평론』(革命評論)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가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토한 것이다. 『혁명평론』의 참가 동인은 이미 아시아주의자로 활동하고 있던 미야자키, 히라야마, 기요후지, 가야노의 4명과 자유민권운동의 세례를 받은 저널리스트 출신인 와다, 이케 그리고 막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타 등의 7명이 주축을 이뤘다. 이케, 기타는 『혁명평론』 참가 이후 중국혁명동맹회에 참가하게 되고, 『혁명평론』 정간 이후는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하면서 아시아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아시아주의자들이 『혁명평론』을 발행하게 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당면한 각종 사회적, 정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주제어: 『혁명평론』, 아시아주의자, 1905년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사회주의, 『광』, 『신기원』, 『革命評論』, 『アジア主義者』, 1905年ロシア革命, 中國革命, 社會主義, 『光』, 『新紀元』

치적 문제의 해결에 있었다. 아시아주의자는 중국혁명 운동의 지원을 통한 혁명 성공으로 우회적으로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혁명평론』이 러시아혁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중국혁명 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 방편이었지 러시아혁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혁명평론』은 천황제 및 천황제 국가에 대해 비교적 맹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그 이면에는 메이지시기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진보의 성취라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자의 특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 1. 서론

본고는 1905년 러시아혁명 기간 중 일본 도쿄(東京)에서 발행된 잡지 『혁명평론』(革命評論)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가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토한 것이다.

1905년 러시아혁명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로 일본의 사회주의자, 일본 망명 러시아 및 중국의 혁명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먼저 러시아혁명이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다 가나에(飯田鼎(1973))의 연구가 대표적이는데, 그는 메이지(明治) 말기 일본 사회주의자의 대표적인 두 노선인 가타야마 센(片山潛, 1859~1933)의 의회정책론과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의 직접행동론의 주요 생성 원인이 러시아혁명에 있다고 지적했다.<sup>1)</sup>

러시아혁명 기간 중 일본에 망명한 러시아혁명가의 일본 내 활동에 주목한 연구는 러시아혁명가 가운데서도 특히 니콜라이 렛셀(1850~1930)

1) 飯田鼎(1973), 「1905年のロシア革命と日本の社會主義: ヨーロッパ勞動運動の日本の社會主義への影響」, 『三田學會雜誌』 66(1), 慶應義塾經濟學會. 의회정책론은 노동자의 보통선거를 통해, 직접행동론은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본의 사회 개혁과 혁명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며, 와다 하루키(和田春樹(197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2)</sup> 러셀은 1905년 5월부터 1910년 10월까지 일본에 체재하면서 나가사키에서 발행된 러시아어 신문 『월라』의 편집장을 지내며, 『혁명평론』과 교류했고 당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쑨원(孫文, 1866-1925)과도 만났다.

한편, 쑨원이 러시아혁명 기간 중인 1905년 7월 19일부터 1907년 3월 4일까지 약 10개월간 일본에 체재한 사실에 주목하여, 러시아혁명이 쑨원과 같은 일본 체류 중국인 혁명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 성과도 있다. 러시아의 옛·엘·자반스키는 중국혁명동맹회의 기관지인 『민보』(民報)에 러시아혁명에 관해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들어 중국의 혁명가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up>3)</sup>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1905년 러시아혁명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아시아주의 논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의 『일본의 아시아주의』(1963)는 아시아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모든 민족이 일본을 맹주로 단결하자는 주장. 둘째,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 특히 중일 연대의 지향. 셋째, 시대적 추이<sup>4)</sup>에 따라 팽창주의, 침략주의 성향을 표출. 넷

2) 和田春樹(1973), 『ニコライ・ラッセル: 國境を超えるナロードニキ』上・下, 中央公論社.

3) 에스·에리·치프vince스키(1975), 『孫文とロシア・ナロードニキ』, 日ソ歴史學シンポジウム組織委員會 編, 『革命ロシアと日本: 第1回日ソ歴史學シンポジウムの記録』, 弘文堂, pp. 133-145.

4) 하자마 나오키(狹間直樹)는 아시아주의의 시기 구분을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초기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가 대등한 시기인 1880-1900년, 중기는 구미 열강과 협조하면서 일본의 우위를 축으로 하는 1901-1927년, 말기는 일본을 정점으로 일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1928-1945년. 狹間直樹(2001.8), 『アジア主義とはなにか』, 『東亞』 No.410, pp. 70-71.

째, 우익도 좌익도 아니며 기존의 사상에 의탁하여 자신의 이념을 표출하기 때문에 사상적 계보가 불명확 함.<sup>5)</sup>

이러한 아시아주의의 상호 모순되고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아시아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사상적 도구로 평가하는 시각과, 아시아 연대를 중요시 한 시각, 그리고 침략과 연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 등으로 나뉘어져 전개되어 왔다.<sup>6)</sup>

본고가 주목하는 『혁명평론』은 아시아주의자에 의해 러시아혁명 기간 중인 1906년 9월 5일 창간된 후 매월 1~2회 발행되다 1907년 3월 25일 제10호로 정간된, 7개월의 단명에 그친 잡지다. 이 잡지는 사상 계보가 불명확한 아시아주의자들이 펴낸 잡지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 기간 역사의 뒀안길에 사장되어 있었다.

이 잡지 관련 기존 연구 성과는 크게 『혁명평론』 자체를 소개한 연구와, 『혁명평론』 참여 동인과 동 잡지와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나가이 카즈미(永井算已(1956·1958)와 하야시 시게루(林茂(1962))는 동 잡지의 발간 경위, 참여 동인, 지면의 내용을 소개했다. 미야자키 류스케(宮崎龍介(1966))는 동 잡지의 편집장 역할을 한 미야자키 토텐(宮崎滔天, 1871-1922)의 장남으로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혁명평론』에 참가한 동인을 근거리서 관찰한 것을 소개했다.<sup>7)</sup>

『혁명평론』과 참여 동인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과 같은 연구도 있다. 오타 마사오(太田雅夫(1972.8))는 중일국교정상화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미야자키 토텐을 『혁명평론』과 관련시켜 검토했다. 특히 그는 잡지 발행 시의 미야자키 토텐 및 관계자의 서간을 새롭게 발굴, 『혁명평론』

5) 竹内好(1963), 『日本のアジア主義』, 『日本とアジア』(문고판, 1993), 筑摩書房, pp. 287-354.

6) 일본 아시아주의의 연구의 국내외 경향을 소개한 것으로는 채수도(2004),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운동』, 『대구사학』 제81집, 대구사학회)를 참조 바람.

7) 宮崎龍介(1966), 『『革命評論』の人々』, 社會文庫 編, 『社會主義無政府主義者人物研究史料(2)』, 柏書房.

의 발간 경위, 필명의 고찰, 종간의 이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혁명평론』 연구를 한 단계 높였다. 우에무라 키비오(上村希美雄(1996))는 『혁명평론』의 동인으로 참가한 와다 사부로(和田三郎, 1871~1926)와 이케 코기치(池亨吉, 1873~1954)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사키무라 요시오(崎村義郎(1996))와 구보타 분지(久保田文次(2000.11))는 동인인 가야노 나가토모(萱野長知, 1873~1947)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나 기존의 『혁명평론』 연구 가운데 이 잡지를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이 발행하는 잡지로 자리매김하고 분석한 연구나, 이들 아시아주의자 동인이 이 잡지를 통해 1905년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 『혁명평론』은 혁명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평론을 게재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은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아시아주의자가 1905년 러시아혁명 기간 중 『혁명평론』을 발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러시아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러시아혁명 보도로 자신들이 의도하던 중국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당시의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

## 2. 『혁명평론』 및 참여 동인의 소개

### 2.1. 『혁명평론』의 아시아주의자 동인

『혁명평론』이 창간될 무렵의 움직임은 『혁명평론』 제2호 ‘편집일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참여 동인들은 1906년 8월 12일 가야노 나가토모가 머물고 있던 도쿄 코비키초(木挽町)의 후생관에서 잡지의 발행을 결의했다. 동인들은 같은 달 18일 ‘혁명평론사’의 사무소 임대계약을 체결

결하고, 기요후지 코시치로(清藤幸七郎, 1872~1931)는 22일 경시청(警視廳)에 잡지 발행 신고서 및 보증금을 납부, 발행 절차를 마쳤다. 동인들은 23일 아오야마(青山)의 공성관(公盛館)에서 제1회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를 분담했다. 동인들의 사무소 입주는 9월 1일에 완료되었다. 같은 달 3일에는 ‘혁명평론사’(革命評論社)의 빨간 간판이 세워지고, 창간호가 인쇄된 것은 4일, 발행일은 5일이었다.

‘편집일지’만 보면 『혁명평론』 발행이 약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동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경위는 보다 복잡했다. 8월 12일 이전 『혁명평론』 동인들이 모이게 된 경위는 미야자키 토텐의 사촌으로 당시 도쿄제국대학에 재학 중이던 쓰이지 노부오(築地宣雄)가 8월 14일 토텐의 형인 미야자키 타미조(宮崎民藏, 1865-1928)에게 보낸 서간에 잘 드러나 있다.

“가야노씨는 일러전쟁 때 만주마적(만주의군(滿洲義軍): 역자)의 두목이었습니다. 귀국하여 도쿄에 있을 때 공교롭게도 새로운 동지와다(和田), 이케(池) 두 사람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윽고 마적인 가야노 자신도 혁명열에 심취하여 혁명의 의의를 이해하고 혁명에 열심인 동지의 말석에 앉게 된 것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동지의 한 명이 된 가야노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만 줄이고 바로 이케, 와다 두 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은 토라조(寅藏) 숙부(미야자키 토텐: 역자)와 다음의 경위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케, 와다 두 명은 모두 약 30살의 신문기자(번역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훨씬 이전부터 혁명 사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겁게 혁명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특히 일본인 가운데서 친구를 찾을 수 없다고 단념하고, 침묵, 탄식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와다씨가 의군에서 돌아온 가야노씨와 학창시절 동창으로 친구인 것을 인연으로 서로 만나 혁명을 담론하게 되었습

니다. 가야노씨의 진보가 미야자키 모씨(미야자키 토텐: 역자) 등과의 교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야노씨의 주선으로 (미야자키 토텐을: 역자) 소개 받은 이케, 와다 두 명은 지나당(중국혁명동맹회: 역자)과 악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5, 6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sup>8)</sup>

상기의 서간을 통해 동인들이 모인 경위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미야자키 토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서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동인의 한 명인 기요후지 코시치로는 미야자키 토텐과 동향인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신으로 그보다 한 살 아래로 어릴 때부터 그와 친구 사이였다. 그는 토텐과 쑨원의 중국혁명 활동을 초창기 때부터 돕고 있었다. 그는 대표적인 아시아주의 단체인 흑룡회(黑龍會, 1901~1946)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1902년 출판된 토텐의 『33년의 꿈』(三十三年の夢)에 쑨원과 함께 서문을 썼다.<sup>9)</sup>

창간 동인으로 참가하지 않았지만 『혁명평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히라야마 슈(平山周, 1870~1940)도 미야자키 토텐의 동지였다. 히라야마는 후쿠오카(福岡) 출신으로 1896년 토텐과 함께 타이 이민 사업을 함께 하였고, 1897년 외무성의 촉탁으로 토텐과 함께 중국의 비밀결사 조사를 위해 중국에 파견되었으며, 토텐과 함께 쑨원의 중국혁명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33년의 꿈』에도 자주 등장하며, 미야자키, 기요후지와 함께 1905년 도쿄에서 결성된 중국혁명동맹회를 지원하고 있었다.<sup>10)</sup>

8) 太田雅夫(1972.8), 『浪漫的革命觀の挫折: 宮崎滔天と『革命評論』』, 『展望』 164號, 筑摩書房, p. 138.

9) 宮崎滔天 著(1902), 『三十三年の夢』(문고판, 1993), 岩波書店, pp. 9-10. 이 책은 미야자키 토텐이 33년 동안 걸어온 인생의 회고록이다. 쑨원을 만나 중국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직접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으로 일본에선 ‘일본의 명저’로 평가받는 책이다.; 孫文記念館編(2012), 『孫文・日本關係人名録(增訂版)』, 孫文記念會, p. 55.

10) 히라야마는 당시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1911년에 『지나혁명 및 비밀결사』(支那革命黨及秘密結社)를 간행했다. 이 책은 중국의 비밀결사와 관련된 초창기의 뛰어난

가야노 나가토모가 미야자키와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1898년경 홍콩에서였다. 그는 미야자키, 히라야마와 함께 쑨원의 혁명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흑룡회(黑龍會)에 가입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흑룡회 주도로 조직된 ‘만주의군’에 참가했다.<sup>11)</sup> 앞에서 언급한 쓰지이의 서간에 등장하는 만주 마적은 바로 ‘만주의군’을 가리킨다.

미야자키, 기요후지, 히라야마가 규슈 출신인 것과 달리, 가야노는 시코쿠(四國)의 고치현(高知縣) 출신이었다. 그는 같은 고치현 출신으로 메이지시기 일본 자유민권운동의 지도자이자 자유당의 설립자인 이따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고치에서 오사카(大阪)로 나가 ‘오사카시사통신사’의 사원으로 일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광둥(廣東), 홍콩 등지서 신문통신원으로서 일할 때 쑨원 등의 중국혁명운동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sup>12)</sup>

가야노 나가토모의 동향 출신 친구인 와다 사부로(和田三郎, 1871~1926)와 이케 코기치(池亨吉, 1873~1954)는 앞의 네 명의 동인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와다 사부로는 가야노 나가토모보다 2년 빠른 1871년에 고치현에서 태어났으며, 가야노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는 1897년 3월 메이지학원(明治學院)의 신학부를 졸업한 후, 오사카의 『관서청년』(關西青年)의 편집에 관여한 것을 시작으로, 고치현의 지방지인 『도요신문』(土陽新聞), 도쿄의 『중앙일보』(中央日報)의 기사를 역임했다. 1902년에는 그가 평생 존경한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비서로서 『자유당사』(自由黨史)의 편집에

---

연구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 11) 崎村義郎 著・久保田文次 編(1996), 『萱野長知研究』, 高知市民圖書館, pp. 39-42.
- 12) 萱野長知(1940), 『中華民國革命秘笈』(복각판, 2004), 帝國地方行政學會, p. 803; 宮崎滔天・萱野長知・北一輝(2008), 『アジア主義者たちの聲 中: 革命評論社』, 書肆心水, p. 31.



관여했다.<sup>13)</sup> 미야자키 류스케는 후년 와다 사부로에 대해 “말 수가 적은 학구파의 사람으로 사상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바쿠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sup>14)</sup> 와다 사부부가 무정부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sup>15)</sup>

가야노 나가토모의 또 한 명의 동향 친구인 이케 코기치는 만 11세 때 기독교 목사인 우에무라 마사히사(上村正久, 1858~1925)로부터 고치현에서 세례를 받고, 앞의 쓰이지의 서간에 의하면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준 형 호소카와 키요시(細川潔)는 자유당의 대표적인 웅변가였다. 호소카와는 1892년 목사가 되어, 이케가 『혁명평론』 동인으로 참가할 때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sup>16)</sup>

이케 코기치는 ‘이케 코우로’(池臯雨郎)라는 필명으로 시집 『루흔집』(淚痕集, 1898), 『가부라야』(かぶら矢, 1905)를 출판하는 등 『혁명평론』 참가 이전에 이미 시인으로서도 꽤 주목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또한 미야자키 류스케가 그에 대해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온건한 사회주의자였던 것 같다. 혁명평론사의 사람들과 손문 간의 대화는 이 사람이 통역을 담당했다.”고 회고한 것처럼, 그는 특히 영어에 능통했다.<sup>17)</sup> 이케 코기치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발휘하여 영문 서적을 잇달아 번역·출판했다. 『3개의 보옥』(3個の寶玉)과 『천로역정』(天路歷程)은 그의 대표적인 번역서인데, 두 권 모두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노의 소개로 『혁명평론』에 참가한 와다

13) 上村希美雄(1996), 『宮崎兄弟傳 アジア篇(中)』, 葦書房, p. 481.

14) 宮崎龍介(1966), p. 107.

15) 崎村義郎 著・久保田文次 編(1996), p. 49.

16) 上村希美雄(1996), p. 483.

17) 宮崎龍介(1966), p. 107.

와 이케는 아시아주의자와는 무관한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와다 사부로와 이케 코기치는 『혁명평론』 참가와 함께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혁명평론』 정간 즈음에는 중국혁명운동의 지원활동에 참가했다. 특히, 이케는 쑨원의 요청으로 1907년 12월 초순 혁명군의 진남관요쇄돌파(鎮南館要塞突破), 운남혁명군(雲南革命軍)의 봉기를 취재했다. 그는 이 취재기를 1908년 5월부터 2개월간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지나혁명실견기’(支那革命實見記)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이 기사를 모아 1911년 11월에 책으로 출판했다. 또한 1911년 신해혁명 때 친중의회(親中義會)를 조직하여 중국을 방문, 쑨원의 비서로도 일했다.<sup>18)</sup>

한편, 『혁명평론』의 창간 동인은 아니지만 도중에 참가한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6)는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島) 출신으로 앞의 6명의 창간 동인과 지역적인 연고가 전혀 없었으며, 중국혁명동맹회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참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타 잇키는 1906년 11월 『혁명평론』에 참가할 당시, 그해 5월 출판된 저서 『국체론 및 순정사회주의론』으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사회주의 그룹은 기타 잇키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일본의 사회주의 이념은 외국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거절했다.<sup>19)</sup> 기타 잇키는 『혁명평론』 창간 동인인 기요후지 코시치로의 소개로 참가하였고,<sup>20)</sup> 곧바로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했다. 『혁명평론』 정간 이후에는 흑룡회에 가입하고, 흑룡회의 파견으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했다. 기타 잇키가 신해혁명의 체험기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 유명한 『지나혁명외사』(支那革命外史)이다.<sup>21)</sup> 그는 1920~3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아시아주의자이

18) 孫文記念館編(2012), p. 29.

19) 竹內好(1963), p. 338. p. 416; 社會文庫編(1964), 『社會主義無政府主義者人物研究史料(1)』, 柏書房, p. 237.

20) 社會文庫編(1964), p. 237.

21) 長谷川義記(1969), 『北一輝』, 紀伊國屋書店, pp. 34-35.

자 파시스트로 활동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혁명평론』의 창간 동인 가운데 미야자키, 히라야마, 기요후지, 가야노는 이미 중국혁명 활동에 참가하거나 지원활동에 관여하고 있던 아시아주의자였으며, 가야노의 소개로 참가한 이케, 와다는 『혁명평론』 참가 이후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중국혁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아시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기타 잇키도 이케, 와다와 같은 경우로 『혁명평론』 참가 후 아시아주의 단체인 흑룡회에 가입하고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하는 등 아시아주의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이케, 와다, 기타에게 『혁명평론』 동인 참가는 그들이 아시아주의자가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 2.2. 『혁명평론』 발행의 목적

아시아주의 성향의 동인 6명은 왜 1906년 9월의 시점에서 잡지 『혁명평론』을 발행한 것일까? 당시 1905년 러시아혁명에 대한 일본의 일반적인 인식은 러일전쟁의 적대국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것이었다. 일본 외무성의 전 정무국장인 나카다 다카노리(中田敬義, 1858~1943)는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일본이 승전하기 위해 “혁명운동은 더욱 더 치열해지기를 바란다.”<sup>22)</sup>고 했는데, 러시아혁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반 대중도 공유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의 러일전쟁에 관한 여론은 개전론(開戰論) 혹은 주전론(主戰論)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사회주의 그룹의 일부도 개전론 및 주전론으로 기울었으며, 반전론을 주장하는 인물은 사회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칸조(內村鑑三, 1861~1930) 정도에 불과했다.<sup>23)</sup>

22) 前政務局長 中田敬義(1905.2), 「露國の動亂と將來の形勢」, 『東洋經濟新報』第330號, pp. 10-11.

아시아주의 단체인 현양사(玄洋社, 1881~1946)와 흑룡회는 물론 주전론을 주창했다. 기타 잇키도 『혁명평론』의 동인 참가 이전에는 열렬한 주전론자의 한 명이었다.<sup>24)</sup> 기타 잇키가 고토쿠 슈스이 등이 발행하는 『평민신문』(平民新聞)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참가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도, 그들이 반전론자였다는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 가야노 나가토모는 『혁명평론』 참가 이전 흑룡회의 일원으로 만주의군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전론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동인들도 만주와 조선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러시아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러일전쟁의 개전론 및 주전론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일본의 승전으로 끝났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은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농촌지역의 폭동은 1905년 가을에 정점에 달해 군대가 진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위기에 처한 러시아정부는 1905년 10월 민권(民權)의 승인, 정당 설립 허가, 보통 선거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하여, 혁명은 점차 하강국면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혁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 의회인 두마가 해산되고, 정부의 이러한 반동적인 조치에 혁명가는 정부의 요인을 암살하는 것으로 대항했다. 러시아 정부는 다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천명에 달하는 혁명가들을 공개 처형했다. 『혁명평론』 창간 전후 시기의 러시아혁명의 상황은 대충 이러한 상태였다.

1906년 9월 5일 발행된 『혁명평론』의 창간호는 발간사에 잡지 발행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의 문명에 뒤떨어져 야만의 구투(舊套)를 덮어쓰

23) 山室信一(2005), 『日露戦争の世紀: 連鎖視點から見る日本と世界』, 岩波書店, pp. 107-108.

24) 松本健一(1996), 『北一輝論』, 講談社, p. 240.

고 식욕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부의 인사(人士)는 훨씬 이전부터 혁명의 여신을 기쁘게 받아들여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이 열정을 불태워 왔다. 공교롭게도 일러전쟁의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공화민주정치 이외에 토지공유의 대의를 기치로 내걸고 칼로 일어나 지금은 분투, 격투의 와중에 있다. 오호(嗚呼), 그들은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일거에 수행하려는 것이다. 구미의 정치혁명에 비해 일본 전진한 것이다.”<sup>25)</sup>

미야자키 토텐이 쓴 이 발간사는 유럽에서 후진국인 러시아가 유럽의 혁명 사상을 수용하여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발간사에서 미야자키 토텐은 러시아혁명과 함께 중국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머리를 돌려 동방의 늙은 제국 지나(支那)의 현상을 보라. 과거(科擧)의 폐지는 새로운 학문의 발흥을 낳고, 청년 학생의 해외 유학으로 이어지고, 사상이 혁명되고 혁명을 숭배하고 있다. 이것이 전도(傳道)되어 그 영역은 지금 천만의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러시아혁명당과 서로 일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그들이 발흥할 시기는 세인의 예상 이상으로 급속해질 것이다.”<sup>26)</sup>

즉, 미야자키 토텐은 러시아혁명이 현재 혁명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영향을 주어 중국혁명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두 혁명을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노가 그의 자서전에 쓴 잡지 발행의 목적도 내용적으로 비슷하다.

25) 宮崎滔天, 『發刊の辭』, 『革命評論』 第一號, 1906年 9月 5日, p. 1.

26) 宮崎滔天, 1906年 9月 5日, p. 1.

“당시 우리들 일본인으로서 중국동맹회에 가입하는 동지들 사이에 지나와 러시아는 세계 2대 전제국으로 무단 압정으로 자유를 억압하여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세계의 평화와 문명의 발달을 기하러 한다면 반드시 이 두 전제 무단국(武斷國)에 혁명을 일으켜 그 정체(政體)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지나와 러시아의 혁명을 돕기 위해 『혁명평론』이라는 월 2회 잡지를 발행하여 중국동맹회의 기관지인 『민보』와 서로 상응하며 활발히 혁명주의를 고취했다.”<sup>27)</sup>

즉, 가야노는 『혁명평론』 발행의 이유를 세계평화를 위해 2대 전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혁명을 도와주어 성공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러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국내에서 머리를 들고 있던 러시아혁명운동과 중국혁명운동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의도”<sup>28)</sup>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혁명을 일으켜 성공시키는데 있었다. 와다 사부로는 “청국의 황제는 러시아 황제를 쫓아 똑같은 궤도(軌道)를 밟고 있다. …… 러시아는 이미 선풍(旋風)이 불어 날씨가 거칠어지고 세찬 비가 자주 내리는 때에, 청국은 짙은 구름 속에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다”<sup>29)</sup> 상태로 비유하며 중국혁명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왜 『혁명평론』 동인들은 중국혁명을 지원하고 성공시키려 했을까? 이것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와 관련하여 미야자키 토텐 연구자인 우에무라 키비오(上村希美雄)와 가야노 나카토모 연구자인 사키무라 요시로(崎村義郎)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 萱野長知(1940), p. 189.

28) 宮崎龍介(1966), p. 106.

29) 鳳梨, 『雜錄: 露清の革命は急速なれ』, 『革命評論』第一號, 1906年 9月 5日, p. 4.

“토텐은 구미의 아시아 침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중국은 분할되고 조선은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독립유지도 어려워지고, 사회개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이 분할되어 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좌시하여 일본 일국이 구미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보다, 대국인 중국과 연대하여 함께 저항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지금의 청조는 부패하여 도저히 구미에 대항할 실력도 기력도 없다. 그러나 중국·조선에도 개혁·혁명에 의해 자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일본인은 그러한 세력과 제휴해야 한다. 중국이 자립하고 일본의 독립이 보증되어야 비로소 형인 타미조(民藏)가 주장하는 사회개혁과 입헌정치의 확립, 자유민권을 철저히 실현할 수 있다.”<sup>30)</sup>

요컨대 미야자키 토텐이 중국혁명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잇키의 중요한 발언이 있다. 그가 1910년경 모교인 사도중학교의 가시쿠라 잇도쿠(栢倉一徳) 교장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현재 앞이 막힌 상태에 놓여있다. 지나의 혁명이 성공하면 반드시 일본에도 영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나의 혁명운동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sup>31)</sup>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천황제 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헌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고, 또한 ‘국권’에 압도되어 ‘민권’이 신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러일전쟁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이른바 히비야야키우치사건(日比谷焼打事件)<sup>32)</sup>으로 분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혁명평론』의

30) 崎村義郎 著·久保田文次 編(1996), p. 20. 미야자키 타미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1) 松本健一(1996), p. 50.

32) 이 사건은 1905년 9월 5일 도쿄의 히비야공원에서 포츠머스강화조약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기로 발생한 폭동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도쿄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참가 동인은 일본의 내적 동인(動因)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적 동인 즉 중국혁명 성공을 통해 우회적으로 내적 동인을 유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혁명평론』의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운동 인식과 일본관

#### 3.1.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 인식

『혁명평론』이 1905년 러시아혁명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글을 게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잡지의 지면 구성을 보도록 하자.

『혁명평론』의 겉모양은 가로 27cm, 세로 39cm이다. ‘革命評論’의 제자(題字)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고 매 호 붉은 색으로 인쇄되었다. 『혁명평론』 전용의 지면은 8면, 부록으로 ‘토지복권동지회’(土地復權同志會)의 회보가 2면, 총 10면이었다. ‘토지복권동지회’는 미야자키 토텐의 형인 미야자키 타미조가 토지평등의 향유(享有)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1902년 설립한 단체로, 미야자키 타미조는 『혁명평론』 창간 직전에 자신들의 운동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전국 유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동지회의 회보가 필요하여 『혁명평론』의 두 개 면을 빌린 것이다.

『혁명평론』 제2호의 지면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면은 와다 사부로의 ‘제왕 암살의 시대’라는 권두 평론을 게재했고, 그 하단은 영문으로 지면의 토픽을 소개했다. 제2면은 ‘구주혁명의 대세’ 난으로 러시아혁명과 기타 유럽 각국의 혁명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제3면은 ‘지나 입헌문제’의 평론을 실었는데, 다른 호의 제3면은 주로 ‘동아기사’(東亞紀事)의 난으로 중국혁명운동의 각종 움직임을 소개했다. 제4면은 ‘잡록’ 코너로 혁명에 관한 평론을 게재하고, 제5면은 주로 혁명 관련 단편 소설을 게재했다. 제6면은 ‘지사의 풍골’로 유명한 동서양의 혁명가를 소



[표 1] 『혁명평론』의 지면 가운데 1905년 러시아혁명 관련 평론 및 기사 목록

호수	발행연월일	필명	실명	제목
제1호	19060905	斷水樓主人	池	혁명문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於長崎KF生	福住克己	러시아폭정의 일반(上)
		鳳梨	萱野	러칭의 혁명은 급속히 되기를
		南窓	宮崎	8월 말의 러시아
		斷水樓主人	池	단편소설 : 혁명입문서(上)
		U·R生	池	지사의 풍골 : 미하일 바쿠닌
제2호	19060920	懷仁	和田	제왕암살의 시대(역사적 관찰)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대세 : 권리문제와 사회문제
		靈南子	池	런던타임즈혁명관
		於長崎KF生	福住克己	러시아폭정일반(中)
		U·R生	池	잡록 : 혁명의 변
		斷水樓主人	池	단편소설 : 러시아황제의 개
		葭湖	和田	지사의 풍골 : 스테프냐크
제3호	19061005	懷仁	和田	러시아혁명당의 사명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 암살의 러시아
		-	-	런던타임즈혁명관
		於長崎KF生	福住克己	러시아폭정일반(下)
		斷水樓主人	池	단편소설 : 러시아황제의 개
		-	-	지사의 풍골 : 베라 자수리치
제4호	19061020	懷仁	和田	암살과 사상의 변천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	-	런던타임즈혁명관
		葭湖譯	和田	적나라한 러시아황제

호수	발행연월일	필명	실명	제목
		虛無黨亡命客	中野寅吉	단편소설 : 독침(上)
제5호	19061110	斷水樓主人	池	혁명과 문학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런던타임즈혁명관
		懷仁	和田	러시아혁명장렬담(一)
		虛無黨亡命客	中野寅吉	단편소설 : 독침(下)
		眠火山樓主人	池	지사의 풍골 : 샤를로타 코르데
제6호	19061125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 고압수단의 일반
				런던타임즈혁명관
		斷水樓主人	池	비소설사실담 : 위기일발
		葭湖	和田	지사의 풍골 : 그로포트킨
제7호	19070101	懷仁	和田	혁명의 신년을 맞이하여
제8호	19070205	dansuiro	池	The near-sightedness Of "Kokumin"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懷仁	和田	미신론
		懷仁	和田	지사의 풍골 : 게르슈니
제9호	19070225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톨스토이백작 대리자의 서한
				예고 : 『러시아혁명의 의의』 출판
제10호	19070325	懷仁	和田	구주혁명의 대세
				톨스토이 대리자의 서한
				예고 : 『러시아혁명의 의의』 출판

출처: 『혁명평론』 각 호를 근거로 필자 작성.

개했다. 제7면은 중국혁명에 대한 평론을 게재했다. 제8면은 혁명 관련 시(詩), 독자투고란인 ‘비안분’(飛雁粉), 편집일지, 각종 잡지 및 책자의 광고를 게재했다. 제9면과 제10면은 『혁명평론』의 부록으로 ‘토지복권

동지회기사'(土地復權同志會紀事)를 게재했다. 이러한 지면 구성은 각 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10호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러시아혁명 관련 논평과 기사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가 많았고 그 뒤로는 중국혁명 관련 기사와 논평이 압도적으로 많이 실렸다.

[표 1]은 『혁명평론』의 기사 및 논평 가운데 러시아혁명과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혁명평론』의 동인들은 실명을 쓰지 않고 필명을 썼기 때문에 필자 파악이 쉽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로 거의 밝혀져 있어 적어 두었다.

[표 1]을 보면, 러시아혁명 관련 글은 와다 사부로와 이케 코기치가 주로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케의 러시아혁명 관련 글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영어 번역 능력을 발휘한, 시나 단편 소설의 창작과 번역 등을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이 많았다. 그는 창간호 1면의 투르게네프(1818~1883)의 작품 「혁명문」을 번역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혁명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혁명입문서」, 「러시아황제의 개」 등을 발표했다. 창간호 6면에 무정부주의의 원조인 러시아의 바쿠닌(1814~1876)을 「지사의 풍골」이란 제명의 난에 실기도 했다.

와다 사부로는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주로 러시아혁명 관련 논평을 담당하여 러시아혁명 보도를 주도했다. 와다 사부로는 제2호에서 정치혁명을 권리문제로, 사회혁명을 생활문제로 평이하게 풀이하여 러시아혁명을 소개했다. 그는 18세기의 유럽혁명은 주로 헌법, 정체(政體), 의회와 같은 인민의 권리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현재의 러시아혁명은 이러한 권리문제뿐 아니라 생활문제인 토지균분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어 이런 이유를 들어 이 혁명에 대해 “동정을 표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부럽다”고 했다.<sup>33)</sup>

또한 와다 사부로는 러시아 혁명가들을 “존경하는 러시아혁명의 지

33) 懷仁, 『歐洲革命の大勢: 權利問題と生活問題』, 『革命評論』 第二號, 1906年 9月 20日, p. 2.

사”로 부르고, 이들 지사들에게 동정을 표하는 “사람은 세계 도처에 충만하고”, 이들 지지자들은 “천지의 정기를 호흡하고 인도(人道)의 대의에 근거하여 탄탄한 공도(公道)를 걷는,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인사”들이라고 소개하며, 러시아 혁명가들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sup>34)</sup>

한편, 러시아 혁명가들이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테러리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회주의자조차 매우 비판적이었는데<sup>35)</sup>, 『혁명평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와다 사부로는 많은 지면을 통해 테러리즘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는 글을 제2호의 『제왕암살의 시대』에 실었다. 그는 “불의하며 간악한 제왕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희생”이라는, 로마 제정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의 말을 인용하고, 19세기 말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제왕, 제후의 암살이 잇따라 일어난 사실을 소개하며 역사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가들이 “제왕을 암살하려는 것은 제도가 그들의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며 주권자의 인격을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러시아 혁명가들은 “천부 인권을 절대적으로 자각하고 있어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러시아 혁명가의 훌륭한 점은 “그 철학적 사색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이너마이트로 이상을 도처에서 실천하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테러리즘을 긍정했다.<sup>36)</sup> 와다 사부로는 또 다른 글에서도 러시아 혁명가의 테러리즘에 대해 “압제 무법한 정부 혹은 권력자에게 행하는 정당방위이다. 즉

34) 鳳梨, 『雜錄: 露清の革命は急速なれ』, 『革命評論』第一號, 1906年 9月 5日, p. 4.

35) 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0),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2集: 光』, 明治文獻資料刊行會, p. 86.

36) 懷仁, 『帝王暗殺の時代(歴史的觀察)』, 『革命評論』第二號, 1906年 9月 20日, p. 1.

다스리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사이의 전쟁에 다름 아니다”라고 테러리즘의 정당성을 옹호했다.<sup>37)</sup>

한편, 『혁명평론』의 중국혁명 보도는 이전부터 중국혁명 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미야자키, 와다, 가야노 등이 주로 담당했다. 중국혁명은 『혁명평론』 발간 당시 1905년 러시아혁명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으켜 성공시켜야 할 혁명이었다. 그래서 『혁명평론』은 지면을 통해 중국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대의, 중국혁명동맹회의 활동 및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혁명운동의 소개, 중국인 유학생 격려를 주요한 내용으로 했다.

특히 『혁명평론』은 중국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론을 게재했다. 즉, 청국의 관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청국의 관리사회』, 『혁명평론』 제6호, 7면), 비밀결사와 같은 혁명단체가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지나의 비밀결사』, 『혁명평론』 제4호, 7면), 쑨원의 중국혁명은 기존의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 민권, 민생을 함께 해결하려는 차원 높은 혁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지나혁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혁명평론』 제9호, 1면), 현재 중국 각지에서 혁명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지나혁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혁명평론』 제9호, 1면) 등을 들었다.

또한 『혁명평론』은 중국의 혁명가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러시아 혁명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테러리즘으로 불리한 정세를 극복하는데 반해 중국의 혁명가들은 이와 같은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sup>38)</sup> 이것은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을 연계시켜 보려는 『혁명평론』 동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 懷仁, 『歐洲革命の大勢 天誅主義(上)』, 『革命評論』 第十號, 1907年 3月 25日, p. 3.

38) 南窓, 『支那革命の大勢』, 『革命評論』 第十號, 1907年 3月 25日, p. 2.

## 3.2. 『혁명평론』의 일본관

아시아주의의 대표적인 단체로 그 원조라 할 수 있는 현양사(玄洋社)의 3대 사칙(社則)은 ‘황실 봉대’(皇室 奉戴), ‘본국(일본) 애중’(本國 愛重), ‘민권 신장’(民權 伸張)이었다. 가야노 나가토모와 기타 잇키가 참가한 흑룡회는 현양사를 모태로 탄생한 아시아주의 단체이다.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기본적으로 ‘황실 봉대’(皇室 奉戴)와 천황제 국가의 국체론(國體論)을 견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혁명평론』은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을 논할 때 천황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시아주의의 보편적인 국체관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이케 코기치는 제2호의 「혁명변」(革命辨)이란 글에서 현재의 천황 및 천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오호! 위로는 영매(英邁)한 자애로운 제왕이 있고, 보필하는 신하 역시 매우 현명하다. 여기에 입헌의 관대한 정치를 펼쳐 모든 문제를 공론으로 결정한다. 우리 일본 제국은 행복하다.”<sup>39)</sup> 즉, 이케는 러시아 및 청국에 비해 자애로운 천황, 유능한 관료, 입헌정치제도를 가진 일본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의 글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그 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의회를 개설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러일전쟁에서 승전을 거둔 일본제국의 자신감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와다 사부로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 우리 일본에서 복고적 암살(보수적 반동 세력에 대항한 암살: 역자)을 보기에는 다행히 국민의 사상이 매우 진보되어 있다. 게다가 이미 사회적 혁명을 성취하였고, 권리문제와 함께 생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 성공시킨다면, 찾아오게 될 세계의 공포를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여 러시아혁명 및

39) U.R.生(池亨吉), 『雜錄 革命辨』, 『革命評論』 第二號, 1906年 9月 20日, p. 4.

중국혁명과 같은 혁명은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sup>40)</sup>

이케와 와다는 천황제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며 일본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약간 보였지만, 기타 잇키는 보다 정도가 심했다. 기타 잇키가 제6호에 ‘외유’(外柔)의 필명으로 게재한 『자살과 암살』이란 글을 보도록 하자.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실을 가진 만국무비(萬國無比)의 국체로 살아가는 자는 다만 충군에국의 도덕 있으면 충분하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나. 신을 찾는다고. 그러나 대일본제국 신민의 생명을 부여받은 의의는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기 위함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나. 생활의 곤란은 빈민의 의무다. 좌식(坐食)하고 재산 없는 자에 대한 연정(戀情)은 월권이다. 무사도는 일본의 명물이다. 자객전(刺客傳)은 국정 교과서에 없다. 문부대신의 훈령은 다만 복종해야 한다. …… 종교는 천조황태신궁을 제사지내고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삼위일체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일본의 역사는 황실의 역사로 만세일계 천지와 함께 국민은 모두 존왕 충군의 신민만이 있다. …… 우리 만국무비의 국체에 있어 천황 폐하는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며, 일러전쟁을 명령하는 것만이 아니며, 또한 국민의 외부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상의 주권자인 것만이 아니다. 실로 그 주권은 사상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도덕·종교·미술적으로도 무한대로 발현된다.”<sup>41)</sup>

이 『자살과 암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만세일계’ 천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의를 표시하는 ‘천황 봉대(奉戴)’의 정신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천황제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메이지 체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표출되어 있어 일본사회에 새로

40) 懷仁(和田四郎), 『暗殺と思想の變遷』, 『革命評論』 第四號, 1906年 10月 20日, p. 1.

41) 外柔(北一輝), 『自殺と暗殺』, 『革命評論』 第六號, 1906年 11月 25日, p. 1.

은 변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야시 시게루(林茂(1962))도 지적한 바 있다.<sup>42)</sup>

그런데 기타 잇키의 연구자인 마츠모토 겐이치(松本健一)는 『자살과 암살』의 내용에 대해 천황제 국가 하에서 국체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현재의 일본을 비판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마츠모토는 기타 잇키가 천황제 국가를 벗어나 한 단계 진화된 국민국가의 창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sup>43)</sup> 마츠모토의 주장이 맞는지 어떤지는 필자의 현재의 식견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기타 잇키는 마츠모토도 인정하고 있듯이 열렬한 천황숭배자였고 일본 ‘우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러시아 혁명가의 주요한 혁명 수단의 하나인 테러리즘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사도는 일본의 명물이다. 자객전(刺客傳)은 국정 교과서에 없다.”고 한 것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데, 일본의 무사도는 그런 테러리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혁명평론』 전반에 드러나는 테러리즘 긍정론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혁명평론』의 동인 간에 혁명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생활의 곤란은 빈민의 의무다. 좌식(坐食)하고 재산 없는 자에 대한 연정(戀情)은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케 코기치는 1907년 1월 쉰원에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른바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와는 정반대”라고 했다.<sup>44)</sup> 그리고 『혁명평론』은 지면에 “우리들은 이른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sup>45)</sup>

42) 林茂(1962), 『『革命評論』の『解説』』, 労働運動史研究會編(1962),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8集: 東京社會新聞・革命評論』, 明治文獻資料刊行會.

43) 松本健一(1996), pp. 206-211.

44) 호머리-이將軍(池亨吉譯・1911), 『日美戰爭』, 博文館, p. 14.



라고 명백히 밝혔다. 『혁명평론』 동인 가운데 사회주의를 기타 잇키처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잘 찾아볼 수 없다.

당시의 언론은 『혁명평론』의 이러한 성향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오타루신문』(小樽新聞)은 “제목만 읽으면 어떤 격렬한 언론인가 하고 괴상하게 여기지만 읽어보면 의외로 온건하다. 국가, 국체가 매우 존중되고 있다”(제5호의 「비안분」)고 평가했다. 고치현의 『도요신문』(土陽新聞)은 “사회주의와는 반대의 잡지다”(제5호의 「비안분」)라고 지적했다.

### 3.3. 『혁명평론』과 사회주의 계열 잡지의 혁명 보도 비교

일본의 아시아주의자가 주도하는 『혁명평론』은 당시 사회주의자가 발행하는 잡지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교 대상의 사회주의 계열 잡지는 월간 『신기원』(新紀元)과 반월간 『광』(光)이다. 두 잡지는 사회주의 기관지의 역할을 한 『직언』(直言)이 ‘히비야야키우치사건’으로 발간 정지된 후 창간됐다. 『신기원』은 1905년 11월 10일, 『광』은 그보다 10일 뒤인 11월 20일 각각 창간되었다. 두 잡지 모두 약 1년간 발행된 후 폐간되었기 때문에 『혁명평론』이 발간되고 있던 시기와 3~4개월 겹친다.

『신기원』과 『광』은 같은 사회주의 계열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메이지시기 일본의 사회주의 사상에는 크게 두 흐름이 존재했다.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도입된 사회주의 사상과, 급진적인 프랑스 유물론 및 유럽사회주의운동과 같이 소개된 마르크스주의다.<sup>46)</sup> 두 큰 틀에서 본다면, 『신기원』은 전자, 『광』은 후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5) 編輯者, 『革命評論辨』, 『革命評論』 第二號, 1906年 9月 20日, p. 4.

46) 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1),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3集: 新紀元』, 明治文獻資料刊行會, p. IV.

『신기원』은 기독교사회주의자인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尙江, 1869~1937), 이시카와 사부로(石川三四郎, 1876~1956),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1865~1945) 등에 의해 창간되었다. 반면, 『광』은 후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니시카와 코지로(西川光次郎, 1876~1940), 아마구치 코켄(山口孤劍, 1883~1920) 등의 주도하에 창간되었다. 『광』 창간 후 메이지시기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을 대표하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0~1933), 가타야마 센, 고토쿠 슈스이 등도 필진으로 참가, 사회주의 중앙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신기원』은 1905년 11월 10일 창간호가 발간된 후 매달 1회씩 총 13호가 발행되었다. 『광』은 창간호부터 19호까지는 월 2회, 20호부터 중간호인 31호까지는 월 3회 발행되었다.

『신기원』의 지면구성을 『혁명평론』과 발행시기가 겹치는 제11호(1906년 9월 10일 발행)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면은 사실인 ‘3전 균일 아직 싸지 않다’(도쿄전차운임인상 관련 사실), 6면은 독자투고의 사실인 ‘형제자매’난을 두었다. 7~13면은 시사 문제를 다루었다. 14~20면은 논설 코너를 두고, ‘현재의 교회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종교’ 등 주로 기독교와 사회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24~34면은 ‘문원’(文苑) 코너를 두고 ‘참회의 고통’, ‘날아가버린 죄’, ‘혁명조’(革命調) 등의 단편소설이 게재되었다. 35~46면은 ‘잡록’(雜錄) 코너, 영문 지면, 광고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기원』의 지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일본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혁명평론』이 거의 일본 국내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반면, 『혁명평론』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루었던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 운동에 대한 기사나 평론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런 가운데 『신기원』의 제11호(1906년 9월 10일 발행)의 기노시타 나오에가 쓴 『혁명의 무연국(無緣國)』의 시사 논평은 이 잡지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기노시타는 러시아가 군주정치

를 부정하는 철학과 종교가 있는 반면, 일본의 지식인은 천황에 의한 군주정치를 철두철미 찬미하고, 국민은 군주신권을 신앙처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노시타는 일본 국민의 가슴 속에는 혁명을 감응할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개탄하고, 일본 국민에게 혁명과 군주 신권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sup>47)</sup> 앞에서 살펴본 『혁명평론』의 아시아주의자 동인이 천황제 및 천황제 국가에 대해 무비판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노시타에게서는 천황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신기원』은 지면에 『혁명평론』의 잡지를 소개했다. 『신기원』 제 11호의 광고란에 9월 5일 창간된 『혁명평론』의 광고를 게재해 주었으며, 반대로 『혁명평론』도 『신기원』의 광고를 게재해 주었다. 『신기원』 제 12호(1906년 10월 10일 발행)의 「9월의 논단」의 난에 「혁명평론의 발간」과 『혁명평론』 제 2호에 게재된 「제왕암살의 시대」를 소개했다. 『신기원』은 『혁명평론』의 발간에 부쳐, “일러전쟁은 끝났다. 러시아혁명은 일어났다. 세계인의 마음은 만주의 평야를 지나 러시아의 수도에 집중되고 있다. ‘혁명’의 경종은 세계의 동포를 각성시키고 있다. 즉 ‘피’와 ‘불’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순수한 혁명주의의 발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혁명평론』이 탄생한 것은 당연한 대세다.”라고 『혁명평론』의 창간에 큰 기대를 걸었다.

또한 『신기원』은 「제왕암살의 시대」에 대해 “‘제왕암살’의 단어는 나태한 민중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하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 출렁출렁 물결쳐오는 암류(暗流)의 하나다. 일본 국민도 언젠가 한 번은 그 암류 앞에서 전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혁명의 무연국」과 같은 논조로 일본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47) 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1), pp. 160-161.

다음은 『광』에 대해 살펴보자. 이 잡지의 지면은 8면 구성이고 전체적인 지면 레이아웃이 『혁명평론』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혁명평론』이 『광』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9월 5일 발행된 제20호의 지면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의 1면은 권두 사설을 게재했고, 그 아래에는 영문 사설을 게재했다. 2면은 「일본의 신문」란으로 일본 국내 각 언론이 보도한 각종 파업 및 노사분쟁 소식을 게재했다. 3면은 「세계의 신문」란으로 세계 각국의 신문에 게재된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 및 노동조합의 활동 및 혁명 소식을 번역한 것을 게재했다. 4~6면은 시사평론의 난으로 일본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었다. 7면은 「동지의 운동」의 난으로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소식, 일본사회당의 공보를 게재했고, 8면은 전면 광고란이었다.

『광』은 『신기원』보다 러시아혁명 관련 논설과 기사를 많이 실는 편이었다. 『광』의 제8호(1906년 3월 5일 발행)에는 「러시아혁명론」이란 제목으로 서양 전문가가 러시아혁명에 대해 17세기의 영국혁명, 18세기의 프랑스혁명과 달리 공업노동자가 단독의 힘으로 꺾기한 세계 첫 사건이며, 사회주의적 혁명은 아니지만 그 처음을 장식한 혁명이며, 지도자 없는 무명의 혁명이라고 논평한 것을 실었다.<sup>48)</sup>

제11호(1906년 4월 20일)에는 「허무당 무정부당 조난사(遭難史)」란 제하의 논설에서,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의 논리에 대해 “근세 사상계의 일대 산물로서 우리들은 매우 존경하고 적지 않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그 실행과로 일컬어지는 허무당, 무정부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완전히 광기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근세 사회조직 속에 잉태된 기형아, 광란아”로 러시아 혁명가의 테러리즘에 의한 혁명을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sup>49)</sup> 기타 잇키를 제외하

48) 勞動運動史研究會 編(1960),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2集: 光』, 明治文獻資料刊行會, p. 60.

고 『혁명평론』의 아시아주의자 동인이 테러리즘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광』은 러시아혁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17호(1906년 7월 20일 발행)의 「북구열사전」(北歐烈女傳)에 러시아의 여성혁명가인 베라 자술리치(1849~1919) 등 다섯 명을 혁명 열녀로 소개했다.<sup>50)</sup> 이어 제18호(1906년 8월 5일 발행)에서는 「무정부당 진압」의 제명의 권두 논설에서 “무정부당을 진압하려 한다면 무정부주의를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정부주의를 진압하려 한다면 천하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세의 모든 학술 지식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sup>51)</sup>고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혁명가에 대한 탄압은 헛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20호(1906년 9월 5일 발행)에 「러시아의 동지여」라는 시를 게재, 러시아 혁명가들의 열렬한 혁명 투쟁에 찬사를 보내고 동지적 유대감을 표명했다.<sup>52)</sup> 러시아혁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혁명평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신기원』과 마찬가지로 『광』에서도 중국혁명 운동에 대한 기사나 평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일본 사회주의자는 일본사회에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주의적 혁명을 일으키는 국내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 중국의 혁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또한 쑨원 등의 중국혁명동맹회는 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광』은 『세계의 신문』 지면에 매년 세계의 유력 신문에 게재된 러시아혁명 관련 주요 기사를 번역, 소개했다. 『혁명평론』은 러시아혁명에 대해 「런던타임즈」의 기사를 번역 게재했다. 그러나 『광』은 러시아혁

49) 勞動運動史研究會編(1960), p. 86.

50) 勞動運動史研究會編(1960), p. 135.

51) 勞動運動史研究會編(1960), p. 139.

52) 勞動運動史研究會編(1960), p. 160.

명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상황도 같은 비중을 두면서 매번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에 편향된 『혁명평론』과 차이가 난다.

『광』도 『혁명평론』을 지면에 소개했다. 『광』은 제20호(1906년 9월 5일 발행)의 광고란에 『혁명평론』 창간호 발행의 광고를 게재했다.<sup>53)</sup> 『혁명평론』도 『광』의 광고를 싣고 있어 『신기원』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잡지 간에 광고 면에서 상호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광』 제21호(1906년 9월 15일 발행)의 「잡지잡견」란에 「폭탄 밟아야」란 제목 하에 『혁명평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요후지 코시치로, 미야자키 토텐 양씨가 발행하는 혁명평론의 전 지면은 혈루(血淚)를 날줄로 하고, 열화(熱火)를 씨줄로 한다. 권두에는 많은 지사 열녀를 실었다. 자유의 경전으로 혁명의 성경인 투르게네프의 「혁명문」을 게재, 지나혁명당 소개가 상세하다.”고 창간호 내용을 소개했다.

사회주의 계열의 『신기원』이나 『광』과 비교할 때 『혁명평론』은 일본 국내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천황제 및 천황제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맹목적이라는 점,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두 혁명의 연계를 도모했다는 점 등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혁명평론』의 참가 동인이 아시아주의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결론

『혁명평론』은 7개월의 단명에 그친 잡지지만 1905년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에 대한 일본의 아시아주의자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53) 勞動運動史研究會編(1960), p. 160.

있다. 먼저 참가 동인은 이미 아시아주의자로 활동하고 있던 미야자키, 히라야마, 기요후지, 가야노의 4명과, 자유민권운동의 세례를 받은 저널리스트 출신인 와다, 이케, 그리고 막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타 등의 7명이 주축을 이뤘다. 이케와 기타는 『혁명평론』 참가 이후 중국혁명동맹회에 참가하게 되고, 『혁명평론』 정간 이후는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하면서 아시아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즉, 『혁명평론』 참가 이후 정식으로 아시아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동인이 『혁명평론』을 발행하게 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당면한 각종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었지만, 정부의 탄압이 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중국혁명운동을 지원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혁명평론』이 러시아혁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중국혁명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 방안이었지 러시아혁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같은 시기 발행되던 사회주의 계열 잡지와 비교해 중국혁명운동 관련 기사와 평론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다.

또한 『혁명평론』은 천황제 및 천황제 국가에 대해 비교적 맹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그 이면에는 메이지시기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진보의 성취라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잠재해 있었다. 『혁명평론』의 이런 성향은 일본의 사회주의 계열 잡지가 천황제 및 천황제 국가에 대해 이성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했으며, 메이지시대 각종 진보로 인한 제 모순을 개혁 혹은 혁명하려 했던 것과 대조된다. 또한 러일전쟁에 대해서도 기타와 가야노를 비롯한 『혁명평론』 참가 동인은 적극적인 개전론 혹은 주전론을 폈지만 사회주의자의 일부는 전쟁 반대론을 굽히지 않았다.

『혁명평론』 및 아시아주의자 참여 동인의 위와 같은 특성은 다케우치 요시미가 아시아주의에 대해 정의한 4가지 특성에 거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勞働運動史研究會編(1962),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8集: 東京社會新聞・革命評論』, 東京: 明治文獻資料刊行會.

\_\_\_\_\_ (1961),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3集: 新紀元』, 東京: 明治文獻資料刊行會.

\_\_\_\_\_ (1960),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1集: 直言』, 東京: 明治文獻資料刊行會.

\_\_\_\_\_ (1960),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2集: 光』, 東京: 明治文獻資料刊行會.

社會文庫編(1964), 『社會主義無政府主義者人物研究史料(1)』, 東京: 柏書房.

### 【논 저】

채수도(2004),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운동」, 『대구사학』 제81집, 대구: 대구사학회.

池亨吉(1900), 『三個の寶玉』, 東京: 警醒社書店.

宮崎滔天 著(1902), 『三十三年の夢』(문고판, 1993), 岩波書店.

前政務局長 中田敬義(1905.2), 「露國の動亂と將來の形勢」, 『東洋經濟新報』 第330號.

池亨吉(1908), 『天路歷程 完』, 東京: 基督教書類會社.

トルストイ(池亨吉・和田三郎譯・1908), 『民權之歸趣』.

ホームーリ一將軍(池亨吉譯・1911), 『日美戰爭』, 博文館.

平山周(1911), 『支那革命黨及秘密結社』(복각판, 1980), 東京: 長陵書林.

北一輝(1921), 『支那革命外史 抄』(복각판, 2001), 東京: 中央公論社.

萱野長知(1940), 『中華民國革命秘笈』(복각판, 2004), 帝國地方行政學會.

板垣退助(1955), 『自由黨史』, 東京: 青木書店.

レーニン(全集刊行委員會訳・1955), 『一九〇五年の革命』, 東京: 國民文庫.

永井算已(1958), 「革命評論について」, 『紀要日本近代史學』 第1號.

\_\_\_\_\_ (1956), 「革命評論瞥見」, 『史學雜誌』 第65編第12號, 東京: 史學會.



- 林茂(1962), 『『革命評論』の『解説』』, 労働運動史研究会編(1962), 『明治社會主義史料集 第8集: 東京社會新聞・革命評論』, 東京: 明治文獻資料刊行會.
- 竹内好(1963), 『日本のアジア主義』, 『日本とアジア』(문고판, 1993), 東京: 筑摩書房.
- 宮崎龍介(1966), 『『革命評論』の人々』, 社會文庫編, 『社會主義無政府主義者人物研究史料(2)』, 東京: 柏書房.
- 中村勝範(1966), 『明治社會主義研究』, 東京: 世界書院.
- 中村勝範研究会文集委員會編(1967), 『ロシア革命と日本: 「きずな」別冊』, 東京: 慶應義塾大學法學部政治學科中村勝範研究會.
- 長谷川義記(1969), 『北一輝』, 東京: 紀伊國屋書店.
- 和田春樹・和田あき子(1970), 『血の日曜日: ロシア革命の發端』, 東京: 中央公論社.
- 細谷千博(1972), 『ロシア革命と日本』, 東京: 原書房.
- 太田雅夫(1972.8), 『浪漫的革命觀の挫折: 宮崎滔天と『革命評論』』, 『展望』 164號, 東京: 筑摩書房.
- 飯田鼎(1973), 『1905年のロシア革命と日本の社會主義: ヨーロッパ労働運動の日本の社會主義への影響』, 『三田學會雜誌』 66(1), 東京: 慶應義塾經濟學會.
- 和田春樹(1973), 『ニコライ・ラッセル: 國境を超えるナロードニキ』上・下, 東京: 中央公論社.
- エス・エリ・チフヴィンスキ(1975), 『孫文とロシア・ナロードニキ』, 日ソ歴史學シンポジウム組織委員會編, 『革命ロシアと日本: 第1回日ソ歴史學シンポジウムの記録』, 東京: 弘文堂.
- トロッツキー(對馬忠行譯, 1980), 『一九〇五年革命・結果と展望』, 東京: 現代思潮社.
- 松本健一(1996), 『北一輝論』, 東京: 講談社.
- 上村希美雄(1996), 『宮崎兄弟傳: アジア篇(中)』, 東京: 葦書房.
- 崎村義郎 著・久保田文次 編(1996), 『萱野長知研究』, 高知: 高知市民圖書館.
- 久保田文次(2000), 『『革命評論』廢刊後の萱野長知』, 『史艸』 第41號, 東京: 日本女子大學史學研究會.
- \_\_\_\_\_ (1999), 『萱野長知の中國觀』, 日本孫文研究會・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孫文と華僑』, 東京: 汲古書院.

狹間直樹(2001.8), 「アジア主義とはなにか」, 『東亞』 No.410.

山室信一(2005), 『日露戦争の世紀: 連鎖視點から見る日本と世界』, 東京: 岩波書店.

宮崎滔天・萱野長知・北一輝(2008), 『アジア主義者たちの聲 中: 革命評論社』, 東京: 書肆心水.

孫文記念館編(2012), 『孫文・日本關係人名録(増訂版)』, 神戸: 孫文記念會.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外國語抄録

---

日本アジア主義者の1905年ロシア革命及び中國革命の認識

- 雑誌『革命評論』の検討を中心に

李正熙\*

本稿は、1905年ロシア革命期間中日本の東京で発刊されていた雑誌『革命評論』を通して日本のアジア主義者がロシア革命と中國革命を如何に認識していたかについて検討したことである。『革命評論』の参加同人はすでにアジア主義者として活動していた宮崎、平山、清藤、萱野の4名と自由民権運動の洗礼を受けたジャーナリスト出身の和田、池、そしてちょうどその時脚光を浴びていた北などの7名が主軸を成していた。池と北は『革命評論』参加以後に中國革命同盟會に参加し、『革命評論』の停刊後には中國革命に直接参加してアジア主義者としての歩みをする。アジア主義者同人が『革命評論』を発行した目的は中國革命を支援して成功させ、日本が直面している社會改革、政治改革の動力を得ようとすることにあって、ロシア革命を直接支援する意圖はなかった。なお、『革命評論』は天皇制及び天皇制國家に對して盲目的な態度を示すばかりか、日本優越主義を餘すところなく表出した。このような特性は日本のアジア主義者が共有するものである。

---

\* 仁川大學校 中國學術院

